

시·군 단체장 치적사업 손본다

전남도, 타당성 떨어지고 예산 확보 어려운 179개 구조조정 나서
여수화양지구·고흥조선단지 포함...순천만랜드 등은 신규 추진

425개 지역개발 사업 검토 결과

전남도내 22개 시·군이 수립해 추진중인 지역개발사업들이 구조조정 도마 위에 오른다. 중간검토 결과 기존 개발사업, 신규 개발사업 가운데 절반 이상이 제척 대상으로 분류됐다. 제척 대상은 상위계획과 부합되는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단체장 치적이나 주민 민원 등으로 계획이 수립돼 현실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업들이다.

22일 전남도에 따르면 최근 지역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중간보고회를 갖고 22개 시·군의 기존 개발사업 253개와 신규 개발사업 172개 등 425개의 사업에 대한 검토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용역을 맡은 한국기술개발(주)이 지난해 말부터 22개 시·군의 지역개발계획서를 취합해 정리한 뒤 시·군 관계자와 2차례 회의한 내용이다.

기존 개발사업 253개 중 여수화양지구 조성, 광양복합물류유통단지 조성, 고흥중흥조선단지 조성 등 179개가 제척 대상이 됐다. 나머지 무안 화산연꽃방죽 관광단지 조성 등 74개 사업은 반영 여부를 검토해 향후 10년 내 추진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시·군이 추진중인 신규 개발사업은 관광개발(17개), 지역특화(16개), 생활환경

전남 소규모 학교 통폐합 후폭풍

초등생들 등하교만 2시간 녹초 ▶6면

코스피 승풍 타고

지역 상장사 25곳 중 21곳 흑자 ▶14면



KIA, 가을잔치 가려면

과부하로 꼬인 불펜부터 풀어야 ▶20면

정비(11개) 등 44개의 개별사업과 128개의 연계 또는 단독 기반시설사업으로 분류된다.

이 가운데 순천만랜드조성사업(면적 8만2000㎡) 등 관광개발 분야는 10개 사업, 여수 방담진 복원 종합정비사업(21만2000㎡) 등 지역특화 분야 7개 사업, 영광읍 외곽도로 개설공사 등 생활환경정비는 9개 사업이 지역개발계획에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128개 연계 또는 단독 기반시설사업 가운데는 곡성~구례간 섬진강변 도로개설공사 등 100건이 통과됐다.

산업·문화·관광·교통·물류 등에 필요한 인적·물적기반을 갖추고 있는 목포시, 여수시, 광양시, 영암군, 무안군, 순천시 등은 거점지역으로 거점육성형 방식, 그 외 시·군은 낙후지역으로 발전촉진형 방식으로 각각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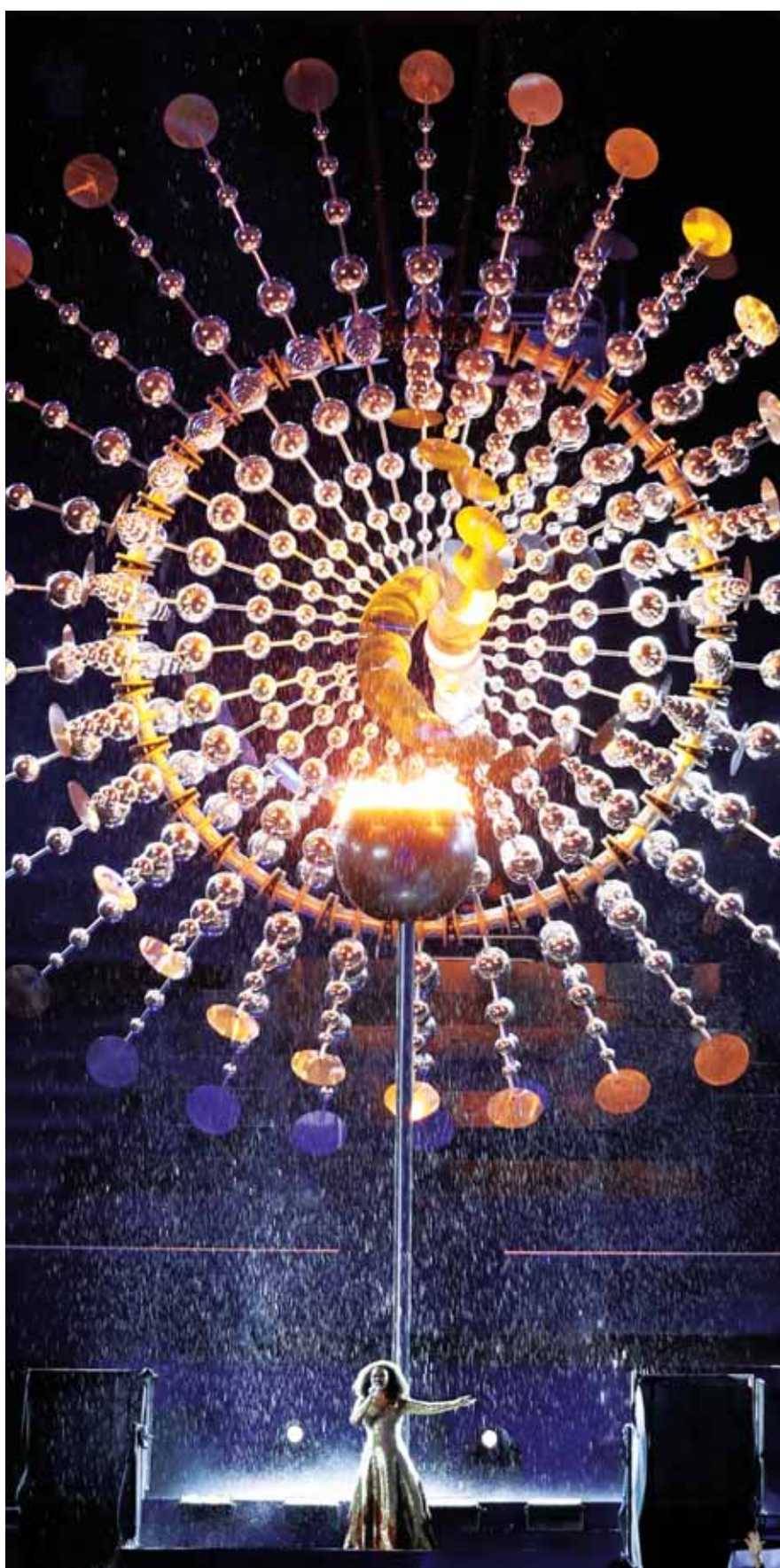
대표적인 신규개발사업으로는 무안 항공산업단지조성사업(272만㎡), 여수 죽림지구택지개발공사(116만7000㎡), 광양 동서통합 남도순례길조성사업(연장 30.8km), 남도 해안가 경관길 개설(49km), 축령산 휴양타운(추암지구) 조성사업(63만8484㎡) 등이 있다.

또 칠산바다 자전거 올레길 조성사업(7km), 서남권 복합다기능 중심여항개발사업, 강진 대구해안경관도로 조성사업(2.6km), 완도 농수산물 물류센터 조성(1만5000㎡), 대명진도해양리조트조성사업(61만㎡), 구례 문화·관광·레저복합타운(5000㎡)도 포함됐다.

전남도는 앞으로 시·군 의견을 최종적으로 수렴하고, 9월 중 지역개발계획서를 작성해 10월 말 국토교통부에 승인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후 중앙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2017년 3월 최종 결정돼 고시된다.

/유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 605-1114
대학원 (062) 605-1115



리우 올림픽 폐막...“2020년 도쿄에서 만납시다”

사상 처음으로 남미 대륙에서 열린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이 21일(현지시간) 축제 분위기 속에 막을 내렸다. 이날 폐회식이 열린 마라카냥 주경기장에서 올림픽 성화가 마지막 불꽃을 태우고 있다. ▶관련기사 18·19면 /연합뉴스

2016 광주비엔날레 D-10

개막식 시민 1000여명 참여 ‘문화 난장’ 전시작품 ‘주민참여’ ‘지역성’ 강화 눈길

‘제8기후대(예술은 무엇을 하는가?)’를 주제로 열리는 ‘2016 광주비엔날레’(9월2일~11월6일) 개막이 1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관련 기사 3면>

1일 열리는 개막식은 시민 1000여명이 함께하는 ‘문화난장’으로 꾸며지며 ‘주민참여’와 ‘지역성’이 돋보이는 이번 전시 작품들도 제작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는 등 설치를 서두르고 있다. 또 공식 개막에 앞서 나이지리아 오토봉 영감 작가의 31일, 9월1일 선보이는 토지와 인간 욕망을 표현하는 댄스, 작가와의 대화 등 다양한 이벤트가 열려 비엔날레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킨다.

1일 오후 6시40분부터 9시까지 비엔날레 앞 광장에서 펼쳐지는 개막식은 시민이 함께 꾸미는 무대다.

식전 공연은 도깨비불을 응용한 타악 연주 ‘도깨비 난장-화교’가 장식하며 박양우 광주비엔날레 대표이사의

개막선언과 함께 시작하는 공식행사에서는 배우 현빈 홍보대사 위촉식이 진행된다.

주제 공연은 항상 변화하는 예술을 형상화해 관객들과 함께 즐기고 의미를 공유하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시민들이 참여하는 개관 이벤트도 열린다. 오후 8시15분 전시관 입구에서 LED 풍선 수백개를 나눠주고 하늘로 날려보내는 빛 퍼포먼스를 펼치며 오후 9시까지의 전시 관람이 이어진다. 개막식 총감독은 연극연출가 반무섭 씨가 맡았다. 이날 개막식에서는 또 가장 실험정신이 뛰어난 작품을 출품한 중견작가(상금 1만달러)와 신진작가(5000달러)에게 수여하는 ‘눈(Noon) 예술상’ 시상식도 열린다.

한편 이날 개막식에는 찰스 헤이 주한영국대사, 바르토메우 마리 국립현대미술관 관장 등 국내외 인사가 참석할 예정이다.

/김홍희기자 kimhy@kwangju.co.kr

광주시 지방채 1조 육박

매년 증가세...재정 ‘빨간불’

향후 2년간 발행 않고 상황

광주시 지방채 규모가 1조원에 육박하면서 재정관리에 ‘빨간불’이 켜졌다. 22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 지방채무는 지난 2011년 7476억원을 기록한 뒤 ▲2012년 7532억원 ▲2013년 7987억원 ▲2014년 8922억원 ▲지난해 9754억원 등이었다.

2011년에만 207억원이 감소한 반면 ▲2012년 56억원 ▲2013년 455억원 ▲2014년 935억원 ▲지난해 832억원 등으로 매년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원인은 하계 유니버시아드 경기장 시설비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2012년부터 해마다 40억원, 140억원, 620억원, 355억원 등 채무가 늘었다.

2014~2015년에는 도로사업비로 190억원, 228억원 등 채무가 발생했으며,

2013년 야구장 신축(100억원), 제2컨벤션센터 건립(170억원) 등 대형 공사도 채무 증가에 한몫했다.

시는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추진으로 재정수요가 대폭 증가돼 본격적인 사업비가 투입되는 내년부터 채무 증가액이 커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2호선 예상 사업비는 지난 1월 현재 추정치로 1조9053억원이다.

시는 올해와 내년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1000억원 안팎씩 상환해 부채 비율을 일단 19% 대까지 낮춰 2호선 건설 착공 후에도 ‘빚 1조원’ 시대 개막을 최대한 늦추고 채무비율 25%를 넘지 않도록 재정을 관리할 방침이다. 2017년 이후에도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도로사업 등 대규모 신규 사업에 필요한 지방채를 우선 발행하고 재해예방, 복구사업 등 긴급한 사안을 뺀 일반사업과 관련한 지방채 발행은 최대한 자제하기로 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생각한다. 반응한다.
지능적으로

The New E-Class. Masterpiece of Intelligence



Mercedes-Benz

신성자동차

신성자동차(주) 광주 전시장
광주광역시 서구 삼부대로 1041 (화정동) /Tel. 062)226-0001

정부 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E 300 (배기량: 1,991cc, 공차중량: 1,740kg, 자동9단) 복합연비: 10.8km/ℓ (도심연비: 9.6km/ℓ 고속도로연비: 12.6km/ℓ), 등급: 4등급, 복합CO2 배출량: 161g/km E 300 4MATIC (배기량: 1,991cc, 공차중량: 1,790kg, 자동9단), 복합연비: 10.3km/ℓ (도심연비: 9.3km/ℓ, 고속도로연비: 12km/ℓ), 등급: 4등급, 복합CO2 배출량: 169g/km
* 본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 상태, 운전 방법, 차량 적재 및 정비 상태 등에 따라 실주행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 상기 제품 이미지는 국내 사양과 다를 수 있습니다